

“시공초월 고통받는 민초들의 희망가요”

강경아 시인, 시와 에세이집 '맨발의 꽃잎들' 출간

고향 여수 배경 국가폭력 희생자 진실 찾기·청년 생존기 담아
“시는 영혼을 살 찌우는 밥... 힘들 때마다 세계를 보게하는 통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응당 시인으로서, 작가로서의 역사적 사명감이랄까요.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작가정신’ 그 역사적 책무감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인이 아니 작가가 역사적 사명감에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창작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그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작품이 탄생된다.

그러나 역사적식은 작품 세계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 토대 가운데 하나다. 예술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고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여수 출신 강경아 시인은 그런 발로에서 시를 쓴다. 자신의 표현대로 “너무 거창한지 모르지만” 역사에 대한 책무는 시를 쓰는 명징한 이유다.

강 시인이 이번에 펴낸 시집 '맨발의 꽃잎들' (시와 에세이)은 역사적 상흔의 도시 여수에 대한 작품들을 담고 있다.

작품집에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과 자본의 먹이사슬에 표적이 되는 청년들의 일상이 나온다.

여수는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인터뷰에 앞서 시인에게 아름다운 항구도시 여수는 어떤 의미일까 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외부인 관점으로는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인지 남다른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 고운 여수는 남도의 발상처를 넘어서 인심이 있어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수10·19의 아픔을 간직한 도시죠.”

여수는 시인에게 “생의 어긋난 틈점들이 불쑥 불쑥 얼굴을 내미는” 역사적 공간이면서 “적막이 사부처럼 바다가 되는”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수는 오랫동안 “국가 폭



력에 희생되고 방치된 슬픔과 한이 서린 지역이었다. 지금도 ‘별개의 도시’,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이 씌워진 채 74년 오욕의 역사를 침묵속에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유가족들이 있다. 시인은 “그들의 아픔과 희생자들의 냇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그러므로 이번 시집은 그런 방치된 진실 찾기라는 명분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진실이 거대한 무덤속으로 수장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작가적 책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인은 “여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이해충돌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시집은 민초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주제로 담았다”고 부연했다.

‘시 여수의 푸른 눈동자’는 아픈 역사를 사실적으로 소환하고 있는 작품이다.

“누가 너희에게 죽여쳐분의 권한을 주었느냐 / 여덟 명의 식물을 거느린 가장에게 / 흙을 일구는 가장 외롭고 가난한 농부에게 / 살뜰했던 윗마을 아랫마을 평화로운 이웃에게 / 누가 너희에게 손가락총을 겨누게 하였느냐 / 좌우로 줄을 세우도록 하였느냐 // 하늘이 갈기갈기 찢기는 소리가 들렸다 / 타다당 탕 탕 탕 탕...”

작품을 읽다 보면 가슴 구석이 아릿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총살이 진행되던 당시 주암초등학교의 전경이 클로즈업 돼 다가온다. “아빠지



강경아 시인

의 흰 무명옷이 죄인의 수의(囚衣)가 되었다”고 읊조리는 화자의 심상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애절하다.

시집에서는 여수의 비극뿐 아니라 80년 5월 광주, 제주 4·3의 상흔을 풀어낸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시인의 눈은 팽목항, 미안나, 스페인 광장 등 시대와 공간을 넘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민초들에게로 향한다.

그렇다고 큰 대나 거시적인 사건들에만 닿아 있지 않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견고한 성체가 되”어 우리를 결연로 다가오는 연대의 힘을 발견한다.

“소외된 우리 이웃의 아픔은 바짝 눌러 붙어 떨어지지 않는 ‘바닥’을 마주하게 합니다. 바닥의 힘은 곧 맨발의 힘, 것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 고목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묵련꽃 한송이처럼 그들 모두 스스로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민중인 것입니다.”

현재 시인은 여천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과목 ‘내마음 속 풍경’이라는 시 창작 지도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논술 지도를 하고 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지만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단상을 시로 옮기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시가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명쾌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답을 내놓는다. “시는 내 영혼과 정신을 살찌우게 하는 ‘밥’과 같은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나게 하고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통로 같은 것이죠.”

한편 강 시인은 원광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시’에 등단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천상의 화음’ 가을 밤 적시네

광주시립합창단, 15일 상무시민공원 야외무대

가을 밤을 부드러운 선율로 적실 야외 연주회가 열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이달 15일 오후 7시 30분 상무시민공원 야외무대에서 수시연주회 ‘가을 하모니’ 무대를 펼친다.

무대는 합창, 남성합창, 여성합창,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먼저 크로스오버 보컬 곡을 편곡해 악기 연주와 혼성합창으로 선보인 뒤 카운터 테너 김대성의 ‘올게 하소서’, 메조소프라노 김혜원의 ‘하바네

라’ 독창 무대를 이어간다.

다음으로 남성 합창 ‘나는 믿어요’와 ‘대성당들의 시대’를 연주한 뒤 소프라노 장은지의 ‘노래하지 마요, 아름다운 여인이여!’를, 베이스 김창식의 ‘마중’을 독창으로 들려준다.

연주의 지휘는 김인재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맡는다.

공연은 전 연령 관람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러닝타임 100분. 문의 062-613-8245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0월, 트럼펫 재즈의 향기

15일 구례 ‘음악이 흐른다’ 하우스 공연장

가을의 정취가 더해지는 10월, 트럼펫 재즈의 향기가 풍긋하게 다가오는 공연이 열린다.

구례 ‘음악이 흐른다’ (구례군 간전면 간문대평 1길 1) 하우스 공연장에서 오는 15일 오후 7시 트럼펫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아름다운기억들’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구례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떠나자는 의미로 개최됐다.

이날 공연단으로는 네덜란드 출신 트럼펫터 율 반 라인과 재즈 피아니스트 전용준이 함께한다.

율 반 라인은 대학시절 한국재즈뮤지션들과 함께한 인연으로 국내 뮤지션들과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등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한편 음악이 흐른다는 1940년-1970년대 빈티지 명기 오디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카페로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율 반 라인

미술경매 시장 ‘찬바람’

3분기 낙찰률 60.59%·낙찰액 439억원...쿠사마 야요이 63억 1위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각경매협회(이사장 김영석)가 올해 3·4분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낙찰총액은 약 439억 4100만 원이었다. 이는 총 출품된 6404점 중에 3880점이 낙찰된 결과였으며, 낙찰률은 60.59%였다. 올해 3분기 경매시장 매출 규모는 지난해(약953억)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의 작가별 낙찰총액 1위는 약 63억원인 쿠사마 야요이가 차지했다. 2위는 이우환(20억 6000만 원), 3위 이매(16억1000만원), 4위 김창열(16억1000만 원), 5위 박서보(14억 3000만

원) 순이었다. 유영국·이건용·박수근·심사정·전광영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의 ‘Pumpkin’으로 22억을 기록했다. ‘Pumpkin’ 시리즈는 5위 안에 모두 4작품이 포함된 정도로 인기를 모았으며 유일하게 박수근의 ‘노상의 사람들’이 8억원을 기록했다.

김영석 이사장은 “3분기 시점이 국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도 맞물려 미술시장의 위축으로 직결됐고 올해 초까지 뜨거운 MZ세대의 미술소비 열풍과 거품이 잦아든 것도 한 이유일 것”이라고 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독립영화비평’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광주독립영화관, 22일부터 강좌

한국 독립영화를 이해하고 비평하는 강좌가 마련됐다. 광주독립영화관은 비평 글쓰기 강좌 ‘사사로운

독립영화 읽기’를 오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주독립영화관 커뮤니티룸에서 진행한다.

5회자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한국 독립영화와 영화 비평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비평글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들은 매주 과제로 제시될 영화를 보고 직접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한다. 강의는 서울독립영화제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한 정지혜 평론가가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10명 안팎으로, 오는 16일까지 이메일(gicinema@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 독립영화에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22-1895. /김다인 기자 kdi@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목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목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목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목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